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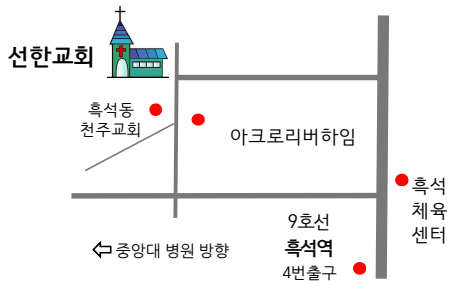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비전워십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2: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장 로	조윤익		
	편도선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계승, 이태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 천 사 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벧전 4:6)



담임목사 임춘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3부 오후 1:0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8장 (통일찬송가 28장)			
교 독 문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찬 양 과 경 배	287장 (통일찬송가 205장)			
기 도	조계승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베드로전서 4장 1~6절		삼상 19:1~6	
설 교	고난중에 따라야 할 성도의 삶 (임춘배 목사)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김미숙 권사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오 일 후		오후 3:30	파워틴(청소년)헌신예배	사회: 김유경 부회장
찬	양	파워틴 청소년		
기	도	백다현 회장		
특	송	파워틴 청소년		
성	경	봉	독	신명기 6장 4~5절 박규진 총무
설	교	파워틴!! 들으라! (윤 영 전도사)		
찬	양	주 품에 품으소서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인생에게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 (시편 107편 1~43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교회한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오늘 점심 봉사는 요셉회입니다.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파워틴(청소년부) 헌 신 예 배	주일 오후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3. 장 레	지난 주에 故 이상규 집사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4. 떡 제 공	이건희, 이주희 청년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5. 사 역 자 휴 가	정용준 목사 26일(월) ~ 30일(금)까지 휴가.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영으로 주님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	---

찬송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통456)

본문 : 마가복음 3장 13~19절

말씀: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 날이 밝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으셨으나 단 한 가지 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는 13절 말씀에 즉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 후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14~15절)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날마다 새벽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다 봤을 것입니다. 주님과 모든 세세한 일상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파송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과 직장, 그 모든 곳이 보냄 받은 선교지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는 인생이 바로 보냄 받은 사도요 제자입니다. 셋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는 권능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권능의 근원이신 주님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도 스며드는 것같이 똑같이 주어져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그 이름을 친히 부르는 제자가 돼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보냄 받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능력있게 전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 목

고난중에 따라야 할 성도의 삶 (벧전 4:1~6)

서 론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1. 고난 중 성도들의 삶

(1) 고난 중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함

(2) 이유는:

- ① 고난을 이기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함 (1절)
- ②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삼 (2,3절)
- ③ 비방받아도 심판의 날을 생각함 (4,5절)
- ④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 (6절)

본 론

2. 교훈

(1) 고난과 정욕 적인 삶의 관계는?

(2) 고난 중에 다시 유혹받는 육체의 정욕은?

(3)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결 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조계승 장로	박영근 장로
2부 예배 헌금	오세영 집사	서창덕 집사
오후 예배 기도	백다현 청소년	김명옥 권사
주 방 봉 사	요셉	마리아

매일 Q.T.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삶	날짜 : 8월 26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12~22		
말씀요약	성도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게으른 이는 타 이르고, 마음 약한 이는 격려하며, 힘없는 이는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항상 선대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을 버려야 합니다.		
목상질문 1	공동체를 세우는 교훈 5:12~15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혹은 동료를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요?		
목상질문 2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 5:16~2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내가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절묵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22절 성도는 모든 일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해야 할 일을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는 선과 악을 판단하여 구별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진리로 포장해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특효약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여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이 말씀을 알면서도 항상 기뻐하지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모든 일에 감사하지도 않았던 저를 용서하소서. 삶에서 만나게 하신 이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이들을 존귀히 여기는 은혜를 주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 뜻을 선명히 이루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 생활”	
찬양과 기도	내가 예수 믿고서(새 421),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암 말기였을 뿐 아니라 혈압과 혈당 수치가 좋지 않아 침상 위에서 주사를 맞으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투병하는 내내 그의 마음에는 낙심만 가득했습니다. 심방하러 온 목사님에게 “이제 저는 다 되어 갑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있는 병실에 비교적 젊은 나이의 암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낙심과 더 깊은 절망에 빠진 그를 보며 먼저 입원한 사람으로서 따뜻한 말로 조언도 하고 병원 생활에 관해 친절히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진통제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1~2인실 혼자 쓰면 외로우니 다인실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는 조언을 해 주었고, 젊은 환자도 그를 잘 따랐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절망스럽지만 그곳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누군가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새롭게 보면서 마음이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씀나누기	데살로니가전서 5:12~22
목상포인트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신앙적 권면을 담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를 존중하고,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 은혜에 감격하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세상 권세를 이기려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관찰과목상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권면을 했나요? (12~13절)
적용하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기도하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가르침을 지키며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	날짜 : 8월 30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13~3:5		
말씀요약	바울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며,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목상질문 1	가르침을 지키는 성도 2:13~17 바울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힘써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서로를 위한 기도 3:1~5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나요? 내가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할 것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15절 모든 인생이 반드시 소유할 것은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분은 복음이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왜곡합니다.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과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은 말로 전하는 '설교'와 글로 쓰인 '성경'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은 세상의 공격을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도 제 곁에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만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주님의 가르침이 제 삶을 지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영광스러운 신앙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매일 Q.T.		평강의 하나님 완성하시는 성도의 삶	날짜 : 8월 27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405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23~28		
말씀요약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전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며,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 주라고 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목상질문 1	바울의 마지막 기원 5:23~24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 간구한 일은 무엇인가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길 소망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마지막 권면과 인사 5:25~28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믿음의 지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24절 일평생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흠 없게 지켜 주시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사망감, 신앙 연수, 봉사 등과 같은 어떤 조건을 갖추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사람과 달리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모든 일을 온전히 반드시 이루십니다(빌 1:6)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부족하고 미약한 제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붙들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은혜의 순간을 살게 하시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백성의 성숙함을 보이게 하소서. 힘겨워하는 지체의 손을 잡아 주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하소서.		

매일 Q.T.		환난 가운데 의지할 공의의 하나님	날짜 : 8월 28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212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1~12		
말씀요약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바울은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핍박자들에게는 환난으로,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영광 받기를 기도합니다.		
목상질문 1	자랑스러운 성도들 1:1~5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힘을 어디에서 얻나요?		
목상질문 2	공의의 하나님 1:6~12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은 환난 당한 성도들을 어떻게 신원해 주시나요? 주님이 갚아 주실 것을 알기에 내가 더 인내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데살로니가전서 1장 11절 이 땅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한지 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타와 비난을 받는 교회의 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가 겪은 믿음의 시련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제 눈물과 인내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실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수고와 헌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대면하기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매일 Q.T.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거하는 삶	날짜 : 8월 29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259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1~12		
말씀요약	누군가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이라 높일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불법의 사람을 폐하실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목상질문 1	마지막 날의 징조 2:1~4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신앙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배운 바를 기억하는 삶 2:5~12 불법한 자의 출현과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마지막 때 능력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을 볼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한절묵상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사탄은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여, 그들을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미혹과 두려움은 사탄이 성도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탄의 공세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단단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마 7:25).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고전 10:4).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과, 기세를 더해가는 이단과,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의 강림하심이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